

오늘 하루를 영원처럼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자유인입니다.  
그 삶의 아름다움이 저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 성전스님 -

##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12일 병원 4층 제2회의실에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백용해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 최희선 위원장, 동국대병원지부 황인봉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 5월 29일 노사 상견례 이후 15차 교섭 끝에 지난 7월 22일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백용해 병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사가 함께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병원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창회’, 개원 20주년 맞아 의료장비 기증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창회’가 지난 8월 7일, 병원 발전을 위한 의료장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2월 병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동창회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한 데 따른 것으로, 기부금으로 환자 모니터링 장비(Patient Monitor) 3대가 구입되어 병원의 3개 부서에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박완임 간호부장, 진영숙 병동간호1팀장, 홍주혜 간호행정팀장, 동창회 대표 및 졸업생 간호사들이 참석해 장비 전달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권보경 동창회 전 회장과 졸업생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라는 마음을 한뜻으로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며 “이번 장비 지원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비를 전달받은 병동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꼭 필요했던 장비를 지원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완임 간호부장은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현장에서 큰 힘과 격려가 되며, 보다 나은 간호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스님들의 무주상보시행 - 불교병원 발전, 생명 방생으로 이어져

지난 8월 4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익명의 두 스님께서 먼 지방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아 4천만 원의 보시금을 전했다. 이번 보시는 어떠한 대가나 답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한 의미 깊은 나눔이었다.

백용해 병원장은 “두 스님의 묵묵한 자비함이 무더운 여름 병원의 벽을 넘어 수많은 생명에 따스한 빛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한다”며 “그 귀한 보시행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참된 치유 공간이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익명의 보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11일에도 또 다른 익명의 스님께서 2천만 원의 보시금을 전달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보시금을 발전기금으로 귀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한층 더 확산시키며, 환자 중심의 참된 치유 공간으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 보현심 보살님, 무주상보시로 발전기금 전달

지난 8월 4일, 팔순의 보현심 보살님께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을 보시하며 불자로서의 참된 나눔을 실천했다.

보살님은 평소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롭게 살아왔다.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조금씩 용채를 모아온 보살님은, 이를 불교병원 발전을 위해 쓰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셨다.

보현심 보살님은 “적지만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실천했을 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겸손한 말씀과 묵묵한 행보 속에서 진정한 보시의 의미가 다시금 빛났다.

백용해 병원장은 “보살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환자 중심의 참된 치유와 불교정신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개원 20주년 기념 특별 코너

## 그땐 그랬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년의 이야기

지난 시간 동안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병원이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아요.

교직원 불교대학 제1기 수료식  
2007. 1. 31.

